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홍길동

논문 한글 제목

논문 한글 부제목

2024년 2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김진홍

논문 한글 제목

논문 한글 부제목

thesis title

thesis sub title

이 논문을 물리학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김진홍

김진홍의 물리학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Chairman	(인)
심사위원	Member 2	(인)
심사위원	Member 3	(인)
심사위원	Member 4	(인)
심사위원	Member 5	(인)

2024년, 11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목차

표 목차	ii
그림 목차	iii
국문초록	iv
제1장 장 제목	1
제1절 절 제목	1
1. 항 제목	2
참고문헌	3
부록	4
ABSTRACT	5

표 목차

〈표 1-1〉	표 예시	2
---------	----------------	---

그림 목차

〈그림 1-1〉	건국대학교 마크	1
----------	--------------------	---

국문초록

논문 한글 제목

논문 한글 부제목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초록이 본문 앞에 영문초록을 맨 뒤에 서술합니다.

하수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쳐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곱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 만승과 전기 만대나 전포 만가와 전고 만좌로써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족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무는 어둡고 킁킁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산중의 내 집 문 앞에는 큰 시내가 있어 매양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한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항상 차기와 포고의 소리를 듣게 되어 드디어 귀에 젖어 버렸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 종류를 비교해 보니, 깊은 소나무가 통소 소리를 내는 것은 듣는 이가 청아한 탓이요,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분노한 탓이요, 못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교만한 탓이요, 천둥과 우레가 급한 것은 듣는 이가 놀란 탓이요, 찻물이 끓는 듯이 문무가 접한 것은 듣는 이가 취미로운 탓이요, 거문고가 궁우에 맞는 것은 듣는 이가 슬픈 탓이요, 종이창에 바람이 우는 것은 듣는 이가 의심나는 탓이니, 모두 바르게 듣지 못하고 특히 흥중에 먹은 뜻을 가지고 귀에 들리는 대로 소리를 만든 것이다.

주제어 : 키워드1, 키워드2, ...

제1장 장 제목

한 논문을 인용시에는 [1] 이렇게 다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2-4] 나타냅니다.

제1절 절 제목



〈그림 1-1〉: 건국대학교 마크

내가 막 요동 땅에 들어왔을 때는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뜨거운 별 밑을 가노라니 홀연 큰 강이 앞에 당하였다. 또한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 끝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대개 천리 밖에서 폭우가 온 것이다. 물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우러러 하늘을 보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것은 하늘에 묵도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이 돌아 탕탕히 흐르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은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나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는 것은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이었다. 또한 어느 겨를에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 위험함이 이와 같으니, 물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모두 말하기를, “요동 들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물 소리가 크게 울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하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밤에 건너 보지 않은 때문이니,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이 오로지 위험한 데만 보면서 무서움을 느껴 도리어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판인데, 어찌 또 들리는 소리가

있겠는가. 지금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 위험한 것을 볼 수 없으니,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있어 바야흐로 귀로 무서움을 느끼니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A	B	C	D
1	2	3	4

〈표 1-1〉: 표 예시

1. 항 제목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마음이 어두운 자는 이목이 누가 되지 않고, 이목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을 더욱 밝혀서 병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내 마부가 밭을 말굽을 밝혀서 뒷차에 실리었으므로, 나는 드디어 혼자 고삐를 늦추어 강에 띄우고, 무릎을 구부려 밭을 모으고 안장 위에 앉았으니, 한번 떨어지면 강이나 물로 땅을 삼고 물로 옷을 삼으며 물로 몸을 삼고 물로 성정을 삼으니, 이제야 내 마음은 한번 떨어질 것을 판단한 터이므로 내 귓속에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무릇 아홉 번 건너는데도 걱정이 없어 의자 위에서 좌와하고 기거하는 것 같았다.

가. 목 제목

옛날 우는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으로 젖혀 지극히 위험했으나 사생의 판단이 먼저 마음 속에 밝고 보니, 용이거나 지령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족히 관계될 바 없었다. 소리와 빛은 외물이니 외물이 항상 이목에 누가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같거든, 하물며 인생이 세상을 지나는데 그 험하고 위태로운 것이 강물보다 심하고, 보고 듣는 것이 문득 병이 되는 것임에랴.

참고문헌

- [1] Steven Weinberg. “A Model of Leptons”. In: *Phys. Rev. Lett.* 19 (1967), pp. 1264–1266. DOI: 10.1103/PhysRevLett.19.1264.
- [2] S. L. Glashow. “Partial Symmetries of Weak Interactions”. In: *Nucl. Phys.* 22 (1961), pp. 579–588. DOI: 10.1016/0029-5582(61)90469-2.
- [3] Abdus Salam and John Clive Ward. “Electromagnetic and weak interactions”. In: *Phys. Lett.* 13 (1964), pp. 168–171. DOI: 10.1016/0031-9163(64)90711-5.
- [4] S. L. Glashow, J. Iliopoulos, and L. Maiani. “Weak Interactions with Lepton-Hadron Symmetry”. In: *Phys. Rev. D* 2 (1970), pp. 1285–1292. DOI: 10.1103/PhysRevD.2.1285.

부록(선택)

부록 A

부록

ABSTRACT

thesis title thesis sub title

Kim, Jinheung
Department of Physic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purus elit, vestibulum ut, placerat ac, adipiscing vitae, felis. Curabitur dictum gravida mauris. Nam arcu libero, nonummy eget, consectetur id, vulputate a, magna. Donec vehicula augue eu neque. Pellentesque habitant morbi tristique senectus et netus et malesuada fames ac turpis egestas. Mauris ut leo. Cras viverra metus rhoncus sem. Nulla et lectus vestibulum urna fringilla ultrices. Phasellus eu tellus sit amet tortor gravida placerat. Integer sapien est, iaculis in, pretium quis, viverra ac, nunc. Praesent eget sem vel leo ultrices bibendum. Aenean faucibus. Morbi dolor nulla, malesuada eu, pulvinar at, mollis ac, nulla. Curabitur auctor semper nulla. Donec varius orci eget risus. Duis nibh mi, congue eu, accumsan eleifend, sagittis quis, diam. Duis eget orci sit amet orci dignissim rutrum.

Keyword : Keyword1, Keyword2, ...